

금요 수필

꽃의 윤희, 그 찬란한 적멸

간 밤에 비가 내린 탓일까. 봄의 잔재 꽃잎이 약속이라...



신영규 수필가

을 거꾸로 꽃잎들은 은하수의 파편처럼 대지에 내려앉아 속세의 공간...

꽃이 떠난 자리에는 한때의 영화를 조롱하듯 앙상한 가지만이 남는다...

하다. 화려했던 꽃은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의 기운이...

사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어느 장례식장 빈소는 유난히...

립선암을 앓았다.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못 하다가 결국 숨졌다...

“선택의 갈림길”... 나날 신선하展

나날 신선하 전(展)이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머물렀다. 먹과 마주하는 일은 그 마을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

기고문

지역경찰의 전문성, ‘경과신설’과 ‘인사혁신’으로 증명해야

경찰의 꽃이 ‘수사’라면, 경찰의 뿌리는 단연 ‘지역경찰’이다...

‘곳’으로 인식되기 일쑤다. 이래라도 지역경찰 경과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



김태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승진구조를 확립...

지역경찰관은 수사 결과 못지않은 법률지식과 고도의 물리력 행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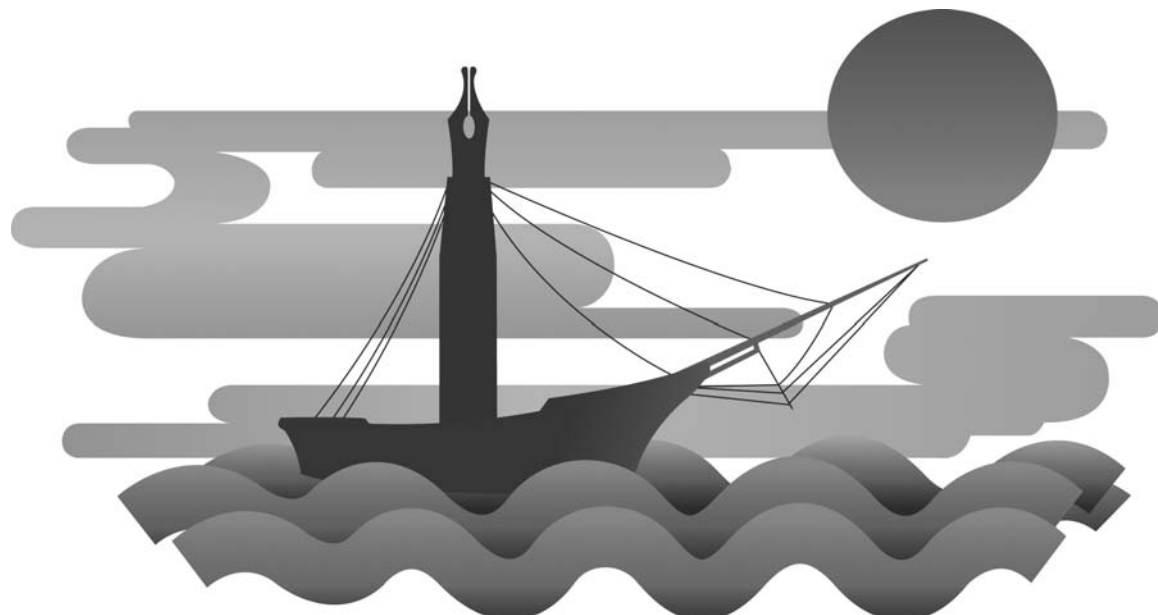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